

[문제 2] 아래 주어진 1, 2, 3, 4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글 <가>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하고 글 <다>의 '경우 (1)'이 추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1300~1500자, 70점)

1.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2. 글 <가>와 <나>의 핵심 내용과 그 관계를 요약하시오.
3. 글 <다>의 세 가지 경우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시오.
4. 글 <라>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가>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격이 움직이면서 노동 및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이룬다. 즉,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응도를 높이고, 시장은 스스로 효율성을 발휘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석탄이든 양철이든 밀이든, 뭐든지 공급부족이 발생하면 단기 재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외계인이 멀리서 관찰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재가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개인이 각자 적정한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일 뿐이다. 시장의 선택은 찰스 다윈이 밝혀낸 자연의 선택과 유사한 구조이다. 생명체의 자연선택이 적자생존을 통해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자연스럽게 방임해두면, 시장은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생명 활동을 통해 사회의 최적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거래는 자발적이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교환이 발생한다.

19세기 이래 다윈의 자연선택과 그에 기초한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작동 원리는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생명체와 시장은 목적과 계획과 안내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시장선택의 자생적 질서를 만들면서 진화한다. 수차례에 걸쳐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 위기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고 비효율적인 자들의 부채에서 기인했거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집중 투자 때문이었고, 그런 위기는 항상 극복되면서 최적화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자연선택적인 작동원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190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과점 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뉴욕주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성인노동자의 노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자유에 대한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간섭이고, 본인과 가족의 부양을 방해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본인과 가족의 부양 및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 노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방, 치안, 철도, 운하 등의 공공재를 위한 소비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을 재단하고 시장 종사자들을 통제하면 자연선택이라는 효율성이 붕괴된다.

<나>

다윈은 '적자'가 되지 못하는 개체와 최적화를 이루지 못하는 종의 사례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주장은 다윈의 자연선택이라는 생태적 개념을 인위적인 시장경제의 사회적 관계에 성급히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즉, 식민지의 시장을 도태시키는 제국의 시장을 자연스러운 자생적 질서로 합리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연계의 진화가 도태를 전제로 최적화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왜곡할 수 있겠는가? 사실 생명체의 세계는 바닥을 향한 거대한 경주의 연속이다. 나무를 생각해보라. 나무가 15미터씩 자라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렇게 자라려면 물과 양분 등 엄청난 자원을 땅에서 저 꼭대기의 이파리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해답은 물론 '나무는 햇빛을 받으려고 애쓴다'이다. 햇빛은 땅 가까이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이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는 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다른 모든 나무의 키가 3미터라면 키가 4미터인 나무가 유리하다. 일조량이 이웃 나무보다 많아진다. 따라서 4미터짜리 나무가 슬슬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나무가 4미터라면 5미터짜리 나무가 유리하다. 과정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괴테는 독일 속담을 인용해 "나무가 아무리 자란다고 하더라도 천국까지 자랄 수는 없다."라고 사회한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경쟁이 나무라는 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이다. 나무들이 더 자라려면 결국 지나치게 연약해지거나 양분 공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햇빛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키가 작은 경우보다 좋아진 것이 없다. 신체동작, 의식, 심지어 사회적 능력발달에 관해서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만약 자연선택이 항상 최적화한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한 꺼풀의 부드럽고 균일한 박테리아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생태계의 엄청난 다양성은, 종의 적응도라는 기준에서 자연선택이 최고만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사실상 개체에게 좋은 것이 종 전체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연선택은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은 그것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경쟁력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자연선택은 경쟁구조와 경쟁방법에 대해 총체적이고 다양한 한계와 엄밀한 환경을 조성한다.

<다>

아래 표를 보면, 사냥꾼 두 사람의 선택의 경우가 나온다. 두 사냥꾼은 덫을 놓는 일로 오후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밀렵을 할 것이냐 하는 결정에 직면해 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덫을 놓는다면 포획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덫을 놓는데 다른 사람은 오후 내내 밀렵을 한다면 밀렵한 사람은 포획량을 세 배로 늘릴 수 있다. 대신 덫을 놓은 사람은 아무 것도 잡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도 밀렵을 하는 수밖에 없고, 두 사람 모두 밀렵을 하면 포획량은 훨씬 감소하여 무엇을 위해 사냥을 하는지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쫓아간다는 욕구의 선택을 따르면 '경우 (3)'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경우	두 사냥꾼의 행위의 조합	사냥 결과
(1)	두 사냥꾼 모두 덫을 놓을 때	각각 2마리
(2)	한 사냥꾼은 밀렵을 하고 다른 사냥꾼은 덫을 놓을 때	밀렵 사냥꾼 3마리 덫 사냥꾼 0마리
(3)	두 사냥꾼 모두 밀렵을 할 때	각각 1마리

<라>

시장의 시스템을 자생적 질서로 합리화하려면, 적자생존이 자연선택에 의해 이룩된다는 선거 구호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시장은 인위적인 산물이고, 그 안과 밖에서 경쟁하는 인간들은 동종 내 개체 간 경쟁에 몰두한다는 사실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적도 없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붕괴된 적도 없다. 자연계에서도 동종 내 경쟁에 몰입하여 한계를 넘는 욕구에 집착할 때, 집합적 자멸을 자초할 수 있는 현상은 상당부분 관찰된다.

시장은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하며, 다양한 한계와 엄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그 규칙을 강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을 위한 세밀한 실행 방안이 필수적이다. 첫째, 농작물을 옆집에서 훔칠 수 있다면, 누가 스스로 농사를 짓겠는가? 둘째, 합의한 노동이나 용역의 가격을 누군가가 맘대로 변경할 수 있다면, 누가 노동이나 용역을 제공하겠는가? 시장의 자유를 신봉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자동차는 중국에 브레이크가 고장 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진화체계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질서나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간은 외부 요인 탓만 하면서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자기 불행의 입안자라는 사실을 무시한다.